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2024년 10월 사역 소식



살롬! 사랑하는 친구와 동역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을 두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사적 충돌 외에 테러 공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센트럴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있는 저희 도시 브엘세바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인인 19세 여성이 사망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모든 테러리스트들은 도망치려 하지 않고, 자신이 죽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총을 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에 대한 증오 때문에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일과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많은 생명을 파괴하는 악마적 증오의 정반대인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 받아 죽으셨습니다. 이 정도의 어둠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와 평화를 위해, 그리고 복음의 빛이 매일 더 밝게 빛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렐아비브 아웃리치

울리의 사연

(아비브 센터 봉사자 레오니드)

어느 날 과거에 가졌던 신앙과 현재의 어려움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살고 있는 남자 울리*가 아비브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희는 약 40명이 아비브 센터를 방문했는데, 모두 평안, 희망, 또는 단순히 따뜻한 식사 같은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리*는 새로 왔기 때문이 아니라 한때 신앙에서 찾은 깊은 자유를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 멀어졌기에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앉았고 울리*는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 전하며, 감옥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증거를 통해 울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곧 감옥 안에서 작은 신자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심각한 감옥이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약간 떨며 회상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있었고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율리*는 겉으로 보기에 다른 종류의 감옥, 즉 죄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때 구원의 기쁨을 알았던 51세의 이 강인한 사람은 이제 깊이 찢긴 상태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기도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율리*의 눈빛에서 보이지만,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 믿으며 그는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저 역시 한때 무너졌지만 용서받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율리*."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함께 기도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율리*는 고개를 저으며 망설였습니다. "안 돼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간구하며, 한때 그가 알았던 자유를 상기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 율리*는 누군가의 강요된 예의 때문이 아니라 가족처럼 깊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님의 존재가 생생히 느껴지는 곳이라며 아비브 센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비브 센터의 방문객들

율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율리*가 다시 한 번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진정한 자유를 만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율리*가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여성 사역



몇 달 전, 저희는 센터의 여성들을 위해 이스라엘 전통곡과 메시아닉 찬양이 포함된 무료 댄스 수업을 시작했으며, 관심이 있는 그외 여성들도 여기 참여했습니다. 이 사역은 현지 여성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며, 이 그룹은 꾸준히 성장하여 교제와 춤을 통해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댄스를 꿈꿨지만 여유가 없었던 우크라이나 난민 등 불신자들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식료품점에서 만난 이레나를

초대했고, 좋아해서 수업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사역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나눠 주세요!



도브&올가 비카스,

dovbikas@gmail.com



P.O.Box 1181 • Arad 8911002 • Israel • Tel/WhatsApp.: +972-544-997336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for donations please visit our website: www.avivministry.com